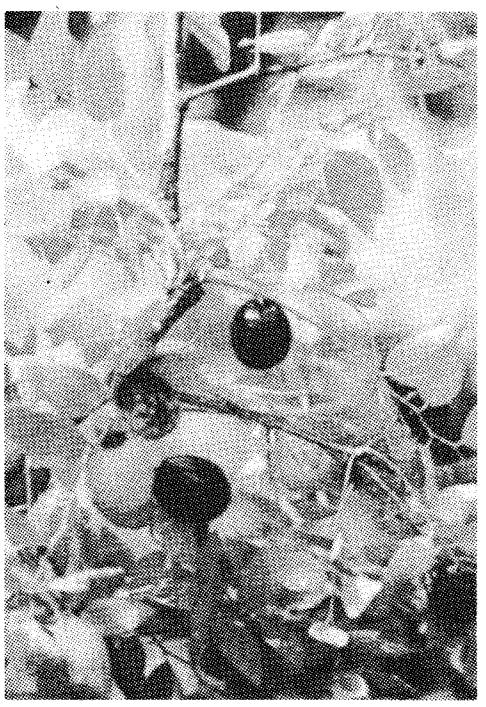
連載 栽培教室

94신규회원을 위하여…

1、학명 : Ziziphus Jujuba Miller
2、과명 : 갈매나무과
3、성분 : Betulin, Betulive acid
4、용도 : 최면, 강장제, 건위, 진통, 신경성전반(노이로제), 불면, 진해
5、약용부위 : 핵
6、재배법
가、적지
○기후 : 우리나라 전역에 재배할 수 있으나 중부 이남지방에서 유리하다.
○토질 : 햇볕에 잘 쬐는 질부근, 발주위, 산비탈, 산기슭같은 개간지로서 자갈이 섞이고 배수가 잘되는 사질양토, 식토나 식양토가 가장 좋다.
※강우량이 많고 공중습도가 높은곳과 바람이 강한 해안지방은 재배가 부적당하다.
나、품종 : 크게 분류하여 산조와 멧대추(산대추) 호대추로 분류한다.
○산조 : 육질맛이 시다고 산조라고 부르며 육질이 아주 얇고 열매도 콩알 정도되는 것도 있고 콩보다 2배 내지 3배되는 것도 있다.
산조의 씨(仁)를 산조인이라하여 한방에서 사용한다.
○멧대추(산대추) : 우리나라 전역에 산과 들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지역에 따라 열매의 크기와 모양이 각양 각색의 종류가 있다. 예를 들면 경북 봉화초(껍질이 두텁고 만생)경남 밀양초 경북예천초 경북경산초 강원 홍천초등, 또한 과실의 모형에 따라 고추 모양같이 뾰족한 것을 고추초라고 한다. 이러한 멧대추중에서 우량종을 선발한 중에서 복조, 홍안, 무등, 금성등이 있으나 손쉽게 구하여 식재할 수 있는 품종은 복조이다.
○호대추 : 중국산대추를 크다는 의미에서 부른 이름이다.
※대추는 잎의 모양과 크게에 따라 그 열매와 『씨』까지도 모양이 다르다 예를 들면 잎이 넓은 대추나무의 열매는 굵고 잎이 길죽하며 종자의 모양인의 모양도 길죽하다. 따라서 잎을보고 대추열매의 모양을 알아 낼수가 있다.

대추 (大 棗)

○묘목선택 : 국내 생산품종은 20여가지가 되나 오전 개화되는것이 85% 오후 개화되는 것이 15%정도다. 오후개화되는 것이 착과가 잘되며 최근 개량된 우수품종은 오후에 개화한다. 진흥청에서 개발한 우수품종은 ①월출 ②무등 ③홍안 ④금성 ⑤복조등이 대과품종으로 당도가 높고 다수확하며 비교적 병충해에 강하다.
다、제배요점
○식재시기 : 봄 3월중순~4월 상순, 가을 10월하순~11월중순
○식재기준 : 3평당 1주
○식재요령
(1)천근성이므로 깊게 심으면 뿌리의 발달이 나쁘다.
(2)세근이 많은 것은 흙을 3분지 2정도 묻은뒤 물을 주어 뿌리사이에 흙이 물과같이 침투되도록 하면 좋다.
(3)봄 여름 가뭄을 대비하여 비닐로 나무주위를 멀칭(씌여줌)하면 성장이 빠르고 제초의 노력도 절감된다.(담배모종같이 비닐멀칭후 대추 나무줄기는 밖으로 나오게 한다.)
7、시비및 관리
○시비
(1)퇴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금비는 300평당(10a) 성목기준 질소, 16kg, 인산 12kg 가리 16kg정도하되 인산은 전량을 기비로 질소와 가리는 60%만 기비로 사용한다.
(2)생장기에는 인분을 5배의 물에 희석하여 주면 성장이 아주 좋다.
(3)대추나무는 천근성으로 뿌리가 땅표면에 얇게 멀리까지 뻗음으로 나무주위에 고랑을 파서 거름을 주면 뿌리가 절단되여 토양중에 있는 병균이 침입할 우려가 있음으로 금비를 지표면에 흩어 뿌리고 경운기로 타리로 얇게 돌려 흙과 섞어주면 된다.
○주요관리
줄기가 상부로 성장함을 좋아함으로 과다한 성장을 막기 위하여 줄기 끝을 잘라주어 측지 발생을 유도하고 너무 빽빽한 가지만 속음 위주로 전정함이 좋다. 그러나 전정을 하지 않아도 개화 결실에는 큰 지장이 없다. 전정을 많이하면 상처를 통해 병균이 침입하여 빗자루 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관도한 전정은 피해야 한다. 표토가 건조하지 않도록 짚으로 덮어 주면 잡초 발생도 막을 뿐아니라 성장도 좋아진다.
○병충해 방제
※충해 : 별로 없는 편이며 가해 정도가 적다.
(1)잎해충 : 노랑쐐기나방(뽕쐐기), 잎말이나방, 흰불나방(살생하면 피해가 심함) 세번, 디프테렉스등으로 구제한다.
(2)줄기해충 : 하늘소 벌레똥(톱밥과 같이)나와있는 것을 관찰하여 살충제를 주입시킨다.
(3)과실해충 : 명나방의 피해가 다소 있으며 7~8월에 방제하면 낙과가 없다.(디프테렉스로 방제)
※이상 충해의 방제는 년 2~3회의 방제로 충분하며 방제하지 않아도 치명적인 피해는 없다.
※병해 : 빗자루병(일병 오갈병, 천구소병)
(1)병원균 : 마이코프라스마균
(2)매개충 : 매미충류에 의해 전염된다고 하며 기타 상처부위로 전염되는 수가 있다.
(3)방제
○사전예방
(1)매개곤충구제
(2)상처를 내지 않는다(전정, 뿌리절단 시)
(3)세력을 약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지력증진, 습해방지, 질소질 과다시비 금지)
○사후방제
(1)옥시테트라씨이크린(테트라마이신) 500~1,000배 수간 주입
(2)주입시기 : 잎이 트기전 4월 하순~5월초와 7월이후 생장기에 1회 더 실시 상황에 따라 2년 계속 실시
(3)주입방법


〈植 物〉

○대경목의 경우 : 수간에 경사 45°의 각도로 구멍을 뚫고 링겔호스로 연결하거나 프라스틱 막대기를 사용한다.(휴수기일 7~15일)
○유목(어린목) : 엽면살포, 뿌리에 관수
○수관에 구멍을 뚫고 마이시린 가루를 그대로 넣고도 효과를 낸다고도 한다.
8、번식
○분주 : 접목묘가 아닌 뿌리자체가 좋은 품종의 뿌리는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온 묘목을 캐내는 것이다.
○실생법 : 대추는 그 씨앗의 껍질이 있으나 그안에 종자가 없는것이 대부분이며 발아가 잘안되고 속성이 못됨으로 이용을 안하며 좋은 품질을 기대할 수 없다.
○접목법 : 대추 나무를 대목으로 하여 좋은 품종의 원수를 잘라 3~4월에 절접한다.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채택하고 있다.
○뿌리 삽목법 : 뿌리는 20cm정도 잘라 삽목하면 발아가 된다.
9、수확및 조제
○시기 : 9월 중하순~10월 상순 착색이 3분2정도 외였을 때 수확한다.
○수확방법 : 나무를 흔들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밑에 멍석을 깔고 장대로 두들긴다.
○선별 : 대, 중, 소로 철망을 사용하여 선별한다.
○조제 : 양건은 시일이(약20일)많이 소요되며 작업이 불편하다. 화건(건조실 건조)은 빛깔, 부피 주름살등이 좋아서 상품가치가 높다.
※유의할점
○기비로써 퇴비를 많이 준다.
○묘종선택은 접목묘로써 잘 절촉되고 세근이 있는 것을 선별 식재해야 한다.
○빗자루병(오갈병, 천구소병)이 번지지 않도록 사전방제 도는 나무에 삼천를 합부로 내서는 안된다.(심기전 미네랄에 뿌리를 2~3시간 담궜다가 심고 6~7월사이 2~3회만 더주면 빗자루병 예방및 치료가 된다.)
○대추나무는 천근성이므로 너무 깊게 심으면 뿌리의 발달이 나쁘다.

自然生採取(인재)

근 (根)

○과명 : 콩과(豆科)
○속명 : 칡뿌리
○약용부 : 뿌리
1、기본 : 산과들에 스스로 자라는 다년생 덩굴풀로서 우리나라 전역에 많이 자라고 있다. 칡덩굴에서는 섬유를 뽑아 갈포벽지를 만들고 그 무성한 잎은 가축의 사료로 쓰고 또 뿌리는 약용으로 쓰는 동시에 전분을 뽑아 식용으로하고 또는 생으로도 즐겨먹는다.
2、생장적지 : 우리나라 전역 어떠한 토질에도 가리지 않고 잘 자란다.
3、특징 : 덩굴은 굵으며 길게 뻗어나가는 성질의 것으로서 산언덕이나 골짜이의 산면에 퍼지면서 뭇나무에 매어달려 자라기를 좋아한다. 또 덩굴은 겨울이 되면 잎만 떨어졌다가 봄에 다시 자라 퍼진다. 잎은셋의 작은 잎과 긴 잎줄기로 되어있고 그 잎에 갈색의 거친털이 달려있고 잎 뒤쪽은 흰빛이다.
꽃은 작은 나비 모양의 홍자색 꽃이피고 그 꽃이 진후에는 평평한 꼬투리가 달리며 거기에는 거친털이 많이 달려있다. 꼬투리가 익으면 흑갈색의 윤기가 있는 씨앗이 나온다.
뿌리는 땅속 깊이 자라며 굵다.
4、채종 : 겨울에 열매에서 종자를 채취한다.
5、파종 : 유기질 토질로서 자갈 섞인 곳에 파종하면 뿌리가 굵어지므로 수확이 많다.
6、채취 : 12월부터 1월에 걸쳐 캐되 가급적 굵고 오래된 뿌리만을 골라 캐야한다.
7、조제 : 캐낸 뿌리는 물에 씻어서 말리기 위하여 겉껍질을 벗기고 세로로 넓게 자르거나 모나게 5mm 정도로 잘라서 햇볕에 말린다. 넓게 잘라 말린것은 방좌갈근이고 한다.
8、이용 : 발한 청량 해열 건위 진경약으로 사용한다.

※독자투고

고욤나무(君遷子)

봄날이 오면 온갖 작물의 미를 뿌리고, 나무를 가꾸고 하는 가운데 모든 식물들이 제각기 꽃을 피우기도 하며 더굵고 맛있고 탐스런 과일을 생산해 내기 위하여 접을 붙이기도 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가장 잘 붙이고 널리 알려진 『고욤나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고욤나무를 이 곳 경주에서는 개양나무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고욤나무는 단단한 씨 많은 과일이기도 하다. 감나무의 사촌쯤 되는지 감나무의 접붙이용으로 많이 이용한다. 고욤나무를 한자로 군천자(君遷子)라고도 부르는데, 감나무과의 낙엽 넓은 잎나무이며 높이가 12m 달하는 키가큰 나무이다. 나무껍질은 암갈색이고 가로로 갈라져 있다. 잎의 길이는 8~15cm 정도이며 타원형인데 잎차루가 있다. 잎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있고 끝이 뾰족하며 감잎 보다는 좁고 작다. 감나무와 비슷하나 잎과 나무잎 굵기 크기가 적고, 열매도 작다. 그런데 꽃은 5월말에 피우며 꽃끝에는 분홍색 빛이 은은히 감돈다. 열매는 달걀 모양이지만 작아서 먹기에 좋아 보이나 씨가 많고 감보다 많이 달리기도 한다.
10월경에 검붉게 익는데 맛이 달면서도 떫다. 그런데 감보다 작아서 먹기에는 안좋을지 몰라도 우리가 옛날부터 민간약으로 쓰여 왔기에 여기 소개하는 바이다.
대체로 남부지방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온화하며 바람이 잔잔한 곳이 성장적지이기도 하다.
약효의 용법으로는 혈압강하, 지갈증, 소갈증등을 예방하는데 혈압강하서에는 하루에 3회 복용하면 된다. 냉즙을 내어 종기에 무즙을 타서 공복해 마시면 좋다고 한다.
봄날인 만큼 고욤나무에 감나무 접을 많이 붙이는 계절이다. 따라서 산비탈 밭둑 논둑에 고욤나무를 심어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였으며 한다.
꼭 우리가 식용 뿐 아니라 산에 심어서 오염과 공해에 시달리는 산짐승들의 먹이로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산과 들에 온갖나무들이 새싹을 피우는 가운데 봄은 오고 있다. 농민들의 마음은 무거울지 몰라도 그래도 일하는 농민들의 가슴마다에 힘찬 젊음이 넘쳐흐를 것이다.
경북 경주군 내남면 망성1리 886번지

권 재